

사활(死活)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의 명운을 건 사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역 균형을 이뤄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선한 의도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활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얼마 전, 부산 동구의 친수공원에 흑상어가 나타났습니다. ‘부캥이’라는 이름까지 얻고 인기를 끈다지만, 기온 상승으로 샴터를 잃고 새로운 터전을 찾아온 기후난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네팔에서는 빙하가 녹아 막대한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내뿜은 탄소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고, 수마가 할퀴고 간 폐허가 언제 복구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AI와 반도체를 탑재한 자율 드론이 날아다니며, 대량 살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침략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서 AI는 전쟁과 점령을 수행하는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AI를 구동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센터는 지구적 규모에서 탄소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속 하얀 클린룸에서 노동자들은 지금도 알게 모르게 위험물 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위험, 오염을 대가로 세워지고 가동되는 AI 인프라는 얼마나 값진 결과를 산출할까요? 며칠 전, 시카고대학교의 한 교수가 AI를 활용해 한해에만 논문 200편을 출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데이터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AI·반도체가 약속한 장밋빛 미래는 도대체 뭘까요? 그 미래를 향해 씬 없이 달려가겠다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문제는 정말로 무엇일까요?

- 선전위원장 